

협회 동정

아·태 전자메시지 협회기구 창립, 협회 멤버로 참여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내에서 FAX, LAN, X.400 E-Mail, X.500, EDI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자메시지 개발에 관련된 사항을 지원,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AOEMA(Asia Oceania Electronic Messaging Assn)가 지난 8월 23일 창립됐다.

호주 멜버른에서 창립행사가 진행된 AOEMA는 전략적인 통신수단으로서 전자 메시지의 활성화와 교육, 인식수단의 지역적인 연결 지원, 지역 기구속에서 조화와 협력자로 세계 메시지 인프라의 개발과 상호 운용 및 결속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AOEMA는 북미 및 유럽의 경우, 각각 EMA in America(EMA), EEMA가 조직되어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반면,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서의 전문조직 또는 그 활동이 미미한 상태와 전화 및 팩스에 이어 제3 통신수단으로 그 활용도가 높은 E-Mail은 북미와 유럽 중심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을 설립배경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일본과 호주가 주도적으로 준비해온 AOEMA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가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일관된 사업추진을 위해 우리 협회가 Council Member로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회원전담제 실시, 회원지원 사업 강화

우리 협회는 올 하반기부터 회원사 권익을 도모하고 회원지원 활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회원 전담제를 실시한다.

협회 간부에 해당하는 부·과장이 회원사를 세부적으로 나누어 전담, 회원사의 애로사항이나 고충을 빠르게 이해하는 한편 협회로부터 회원사로 이어지는 각종 업무체계로 강화시킴에 된다.

신범식 상근부회장 부임이래 회원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협회는 전담제를 통해 개선사항이나 보강, 지원 방안등을 마련, 협회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산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난 87년 설립된 우리협회는 그간 정보통신산업과 관련 사업자 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정부기관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현재 정보통신관련 기업, 연구소, 단체등 132개의 회원사를 두고 있으며 정보통신시대를 맞아 가입 회원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정보통신관련 정책이나 입법시에 우리 협회를 통해 산업계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는 비중이 매우 크며, 산업계로부터의 정부건의나 발전방안 모색등도 중간자 입장에서 협회가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VAN, EDI, DB, 멀티미디어 등 정보통신산업의 핵심주체가 되어온 분야들을 집중육성하는데 기여하는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다.

또한 협회는 정보산업계에 가장 취약한 분야인 조사통계 업무에도 주력해 올 상반기 정보통신업계 최초로 통계청 통계지정기관으로 인정을 받아 그 공신력을 확인했다.

'95 정보통신금융·세계 지원방안 마련

정보통신산업 금융·세계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우리협회는 이를 위해 지난 8월 25일 협회회의실에서 쌍용컴퓨터 제만호 이사

등 업계·관계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원방안의 연구범위, 방법, 추진일정 등이 협의되었으며, 지원효과 분석을 위한 설문지 검토도 이루어졌다.

협회직원 국제화 마인드 제고 위한 인터넷 교육

우리협회는 직원의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인터넷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8월 28일과 29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된 이번 교육에선 외부 전문가를 초빙, 인터넷의 개요로부터 인터넷에서 정보찾기, 인터넷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실용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실용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다루어졌다.

협회는 앞으로 전직원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WTO기본통신협상 설명회 개최

우리 협회는 지난 8월 17일 상공회의소에서 WTO출범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기본통신협상 설

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정보통신부의 이종순 협력국장과 주현정 부이사관, 통신개발원의 최병일연구위원, 정보통신부의 강문석 서기관이 참석, 그간 진행된 통신협상 내용을 설명했다.

정통부의 주현정 부이사관은 “WTO기본통신협상 진행상황”을 최병일연구위원은 “외국의 통신시장개방 동향”을 강문석 서기관은 “외국의 항허요구 내용”을 각각 발표했다.

주제발표 후 일반 참석자들의 질의가 있었으며, 협상진행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측의 준비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물었으며, 주제 발표자측은 성의있게 답변에 임했다.

이날 정부측이 밝힌 협상진행 상황을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상 테이블에서 참가국

들은 우리의 기본 서비스 시장 전면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측은 개방수위조절을 위해 다른 국가 특히 EC의 개방 허용 수준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협회 「가이드」 북 발간

우리 협회에서는 최근 협회 활동을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 북을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협회의 연혁 및 주요기능, 주요사업 및 실적이 함께 실려있으며, 협회의 조직 현황 및 가입안내가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어 협회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한 눈에 알아 볼수 있도록 편집되었다. 협회 가입을 희망하는 관련 업체들은 이번에 새롭게 발간된 이 「가이드」를 참조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연락처 : 사업지원과 5131-116~7) ◆



◀ 우리협회 주최로 열린 WTO 기본통신협상 설명회.